

찬 송 ..... 478장 .....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 교회소식 ✠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성령강림절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창조2 / "흘러라, 생명의 강물아"  
/ 암5:24; 계22:17; 요4:13-14 >

☐ 예배 : “다가올100년의 부흥을 심는 사람들”  
117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이 지금의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뿌려,  
교회의 내일과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거룩한 전도자가 됩시다.

창조질서회복 설교시리즈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청지기”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7월 5일	나무에게 배우는 예배	렘 17:7-8	계 22:1-2	막 8:22-26
7월 12일	흘러라, 생명의 강물아	암 5:24	계 22:17	요 4:13-14
7월 19일	흙, 생명을 품는 거룩한 터전	창 2:7	갈 6:7-8	막 4:3-8
7월 26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요 4:10-11	롬 8:19-21	마 6:26
8월 2일	하늘의 바람, 성령의 숨결	겔 37:9-10	엡 2:2	요 3:8

- ☐ 정기당회 : 7월 5일(오늘) 오후 2시 30분, 회의실
- ☐ 모임  
- 구역장모임 : 7월 5일(오늘) 오후 1시, 회의실  
- 재산관리위원회 : 7월 5일(오늘) 오후 1시 45분, 회의실
- ☐ 중보기도팀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관람 : 7월 7일(화) 오전 10시, 교회출발
- ☐ 동시통역부 워크샵 : 7월 12일(주) 오후 1시, 회의실 (강사 : 신혜인 교수, 한동대)
- ☐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 성경통독(1~6월) 읽기표 제출자 시상 : 사무실에서 명단 확인 후 선물 수령
- ☐ 교직원 부임 : 안혜정 간사
- ☐ 식당봉사  
- 5일(주) : 강승희 최은진 / 강성윤 김성보  
- 12일(주) : 박금희 이지영 / 김종명 김형주
- ☐ 교우소식  
- 출산 : 황인욱 노민 성도(602구역) 득남, 윤성진 김미래 집사(603구역) 득남  
- 병상세례 : 김창세 성도(김준 성도 부친, 일산동국대병원),  
노안자 성도(손선경 권사 모친, 서울센트럴요양병원)

☐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부서	일정	장소	주제
영아유치부	7월 25~26일(토,주일)	안동어린이집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아동부	8월 1~2일(토,주일)	아동부실 & 교회마당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7월 31일~8월2일(금~주일)	가평 이오스펜션	지피지기: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다
청년부	8월 7~9일(금~주일)	황성 현대수리조트엔제너두	다시 새롭게!

1 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성령강림절 후 여섯째주일

제769호  
2026. 7. 5.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나무에게 배우는 예배”

예레미야 17:7-8

유난히 더운7월의 첫 주, 우리는 푸른 숲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창조 질서의 회복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부릅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버섯 균사들의 네트워크(우드 와이드 웹)를 통해 서로 물과 영양분을 아낌없이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로 가뭄을 이겨냅니다. 우리 안동교회도 어르신들의 깊은 기도의 뿌리와 다음 세대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띠로 긴밀히 연결되는 사랑의 공동체, '푸른 숲'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우리는 나무가 제공하는 산소와 호흡의 소중함을 깨닫고 무분별한 낭비와 벌목을 막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정원이자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시선을 열어 세상 속에 가득한 주님의 생명력을 발견하고 푸른 숲을 이루는 상생의 삶을 살아갑시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보이지 않는 연결] 숲속의 나무들이 땅속에서 균사망으로 연결되어 함께 가뭄을 이겨내듯이, 우리 삶에서 나와 기도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2. [정원사로서의 실천] “나무의 호흡을 막는 것은 우리 자녀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종이 아끼기 등 나무의 숨통을 열어주는 작은 실천 행동 한 가지를 정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 성령강림절 후 여섯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 개회예전

###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 말 은 이

### <성경의 선언> (눅4:18)

(목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 <개회송> (오르간)

### <오늘의 기도>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이의 종이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 19장 ..... 다 같 이

### <죄의 고백과 용서>

####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나이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인자를 사랑하지도 못하였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며,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으로 우리를 불드소서.

### (3) 사죄의 선언

(목사)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아멘.

###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 말씀예전

###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 79장 .....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 예레미야 17:7-8(1077) ..... 임채호 안수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말씀> ..... 요한계시록 22:1-2(421) ..... 임채호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씀 목 상 > ..... “구주 예수 의지함은” .....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 마가복음 8:22-26(67) ..... 임채호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 『나무에게 배우는 예배』 ..... 황영태 목사

###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 목 회 기 도